

# 南氏追遠誌

## 序

祖先의 德行을 追慕하여 世上에 傳함은 古今에 다름이 없는 一大禮度이다.

又何南公相喆翁은 李朝末期 天主教에 對한 一大迫害로 赫赫한 家門이 滅門之患을 當한 慘禍속에서 神異하게도 遺腹子로 誕生하여 絶孫의 危機를 冒免하고 子子孤兒로 成長하여 一門의 血脉을 잇게 되었을뿐아니라。世慾을 멀리하고 信教에 忠實하며 高潔端雅한 生活속에 寒土의 節操을 지켜왔다。

이렇듯 不遇한속에서 孤單한 生涯를 보내은 翁은 七旬 老軀로서 率先奔走하여 南門의 大同團合과 祖先의 彰顯을 爲해 南氏大同譜의 創刊과 始祖墓의 發現治山등 많은 業績을 이룩한바있다。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八旬 老衰임에도 不拘하고 南氏祖先歷代의 勲業을 밝히고 아울러 後孫의 訓導를 爲해 南氏追遠誌의 發刊을 서둘러 그 編輯을 告畢하였다。

翁과는 累代의 世交關係가 特別하였음은 勿論이지만 더욱 翁의 그 高邁淳雅한 天性和 德行、仁慈溫和한 情誼와 和氣는 平素 尊敬과 羨望을 마지않던터이라。才非識薄임을 무릅쓰고 敢히 鈍筆을 들어 序文을 試述하는바이다。

大抵 우리나라 閥族의 淵源은 若干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大體로 千數三百年前內外인 新羅末葉부터 알려져있다。南氏一門도 唐吏部尙書 南英毅公諱敏이 始祖인 즉 大概 同一한 時代이라 南氏一門은 始祖以後 羅麗以來로 十有餘世紀를 지나는 동안 源遠根深하고 勲德節文이 歷世繼承되면서 幹昌枝繁하며 英陽、宜寧、固城의 三貫으로 貫分되고 各貫의 派譜까지도 發刊되어왔으나 始祖以下 三貫南氏의 全體가 總合된 大同譜는 發刊되지 못하여 南氏門中은 勿論 周圍에서도 大同譜가 發刊되기를 希冀해마지않았다。

이에 翁은 率先主動하여 全國 南氏各派의 代表者를 集結하여 마침내 南氏大宗會를 發起結成하고 同大會長에 被選되어

여러 차례 大都會議를 거듭한 끝에 南出三貫을 總合한 三貫南氏 大同譜編纂委員會를 構成하고 三年餘의 時日과 物心兩面으로 莫大한 努力을 傾注하여 各貫各派의 單子를 無漏히 蒐集臚梓하므로서 得姓後 二有二百餘年만에 비로소 全國南氏를 總網羅한 三貫南氏大同譜를 完成하였다. 또한 失傳으로 確證을 보지 못하고 한갓 疑塚으로 傳해은 英毅公墓에 對해 連三年間에 걸쳐 大都會議의 開催、文獻記錄의 調査、疑塚에 對한 現地踏查等 全力을 기우린 끝에 多數同族이 山上에 集合하였다. 翁自身이 先着手開土한 후 諸宗과 함께 疑塚을 開封하여 的確無疑한 確證을 發見하므로서 失傳으로 나려온 始祖墓 發現에 成功하였다. 始祖墓는 同族 貞變의 特別義捐과 南門諸宗의 誠意로 改葬封築하고 墓碣과 神道碑等 一切의 石物이 整然히 豎立되어 面貌가 一新되었다.

老境衰軀도 不顧하고 爲先爲宗의 二大事業을 成就한 翁은 또다시 祖先歷代의 德業을 文獻에 남기어 追遠의 一助로 되도록하기爲해 南氏追遠誌編輯委員會를 組織하고 累年에 걸쳐 祖先歷世의 行狀、科策、忠、孝烈、文章등을 蒐輯하여 臚梓하기 에 이르게 된 것이다.

大抵 國家나 社會나 家庭을 莫論하고 時日이 흐름에 따라 榮枯盛衰와 吉凶禍福은 없을수 없는 것으로 우리民族은 羅麗以來로 近世期李朝를 지나는데 동안 크고 적은 內憂外患이 끊임없이 反復되었으며 더욱 契丹과 女眞、蒙古 등의 侵援를 비롯하여 壬辰倭亂과 丁卯丙子の 兩次胡亂은 實로 國家와 民族을 累卵의 危機에 모러넣기도 하였는 것이다.

近世末에 접어들면서 西力의 東漸과 國際情勢의 激變으로 우리의 國家와 民族은 激動의 소용두리속에 말려들게 되고 外勢의 浸透亂舞로 安危와 運命이 百尺杆頭에 서게 되었음에도 오직 中國만을 依持하고 極度の 鎖國主義의 垣牆속에서 井中蛙의 見識에 自醉되었는 當時 北京使臣의 往來便으로 天主教理의 書籍이 傳해지자 李承薰、李堯、權日身、丁若鏞、李家煥 등 國際情勢에 눈이 뜨이고 新進思想을 품어온 實學의 碩學들은 이를 보고 天主教에 大學入教하였고 當時政權에서 疎外되어

不遇했든 南人들은 바뚇하여 社會의 混濁으로 趨向할바를 잃었던 民衆들이 續續投身하므로서 教勢가 갑자기 커지게 되매 爲政層은 儒敎道義에 違背된다하여 二三회에 걸쳐 天主教에 大迫害를 加해 많은 教徒를 大量投獄虐殺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로부터 數十年間은 政爭은 日加月甚하여 政治의 腐敗와 社會의 不安은 極度에 達했으되 天主教에 對한 迫害는 甚하지 않아서 教勢는 挽回維持될수 있었다.

그러던中 哲宗이 無嗣逝去하고 高宗의 登極으로 大院君李昰應이 政權을 잡아 君王中心의 中央集權을 強化하고 暗昧한 鎖國策을 固執하여 極度の 專制獨裁를 敢行하게되었고 더욱 丙寅과 辛未의 兩次의 洋擾를 克服하므로서 鎖國의 信念은 한 톨 더 굳어져 斥洋斥和碑까지 建立하고 鎖國을 더욱 強化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俄羅斯軍艦의 元山灣不法侵入事件의 發生으로 朝野가 크게 動搖되매 大院君의 府夫人 驪興閔氏는 天主教主敎의 힘을 빌어 俄羅斯軍艦을 모리내고저하여 承旨南鍾三으로 하여금 大院君에 獻策토록하였다. 南承旨는 全家族이 이미 十餘年前부터 天主教를 信奉하였고 府大夫人도 天主教에 歸依해있었던 것이다.

南承旨는 大院君에게 天主教主敎를 通하여 英佛 등과 友好關係를 맺어 俄羅斯에 對抗할것을 書面과 口頭로 建議하고 大院君으로부터 主敎를 招請交談케 해달라는 緊囑까지 있었다. 그리하여 南承旨는 地方에 宣敎中인 張主敎와 安副主敎에 그 뜻을 傳하여 그들이 上京하자 다시 雲峴宮으로 大院君을 往訪했든바 大院君의 態度는 猝變하여 主敎와의 面談도 主敎의 힘을 비는 일같은 것도 다 不急한 事情일뿐 아니라 自身도 잘 알고 있다는 등 前日과는 判異한 冷淡한 態度였으므로 南承旨는 그 동안 俄羅斯軍艦이 이미 退去하였기 때문에 緊急性이 없어진 탓으로만 생각하고 물너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南承旨의 誤算이었다 俄羅斯軍艦의 退去로 天主教徒에 對한 增惡心이 더욱 굳어진 大院君의 머리속에는 天主教의 大迫害, 天主教徒의 虐殺全滅이 決心되었고 即刻 實行으로 옮길것이 構想되어있었음을 南承旨는 알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果然 大院君은 全國에 嚴命을 나리어 天主教徒라면 貴賤과 男女老少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잡아드려 處刑하기에 이르렀다.

南承旨의 집은 南氏門中에서도 特別히 이름 있는 八角亭南氏로서 南承旨집안이 西學으로 不遠 被逮되어 極刑에 處해지리라는 所聞이 紛々하매 同族中에서도 承旨집과 가까운 親戚들中에서는 連累의 酷禍를 막기위해 累次聯疏를 올려 南鍾三에 嚴刑을 加할것을 策動할일도 있고 그래도 不安하여 南承旨집과는 接觸도없고 또한 異族視하고 있음을 表示하기위해 三代의 行列字까지 고친일도 있었던 것이다.

大院君의 天主教大迫害令으로 一八六六年三月一日을 前後하여 많은 天主教徒들이 大量으로 逮捕處刑되었는데 南承旨집도 嘉善大夫 號雨村 尙教(教名아오스딩) 承旨 號煙波 鍾三(教名요한 福者로 諡福될)과 十五歲의 明熙 등 三代가 逮捕되어 雨村은 公州에서 煙波는 漢城에서 明熙는 全州에서 各各殉教하므로서 李朝開國元勳領議政南在의 直孫一家는 朝鮮建國太祖 李成桂의 直孫인 大院君李是應의 손에 滅門之患을 當했던 것이다. 家柱를 잃은 承旨의 淑夫人延安李氏는 九歲女, 七歲女와 四歲男揆熙 등 세어린이들과 함께 昌寧에 流配되어 九年間 抑留되었다가 李氏는 그곳에서 殉教하고 揆熙 등 三名은 當地官員의 厚意로 겨우 釋放되었다. 揆熙는 그뒤 漢陰의 後裔李顯教의 女와 結婚하여 相喆翁을 出生하게되었으나 翁은 出生二朔前에 府君이 逝去하고 生後一朔만에는 慈妣마저 繼歿하여 子子孤兒는 外祖母손에 養育成長되므로서 承旨家の 血統이 이어지게된 것이다.

一九六三年 十一月二十二日 南翁은 十一歲의 少年으로 日本에 人質로 抑留되었는 英親王 李垠의 還國歡迎大會의 大會長으로 그들을 맞이 하여 드렸으니 大院君손에 慘禍를 당한 南承旨의 孫子인 南翁으로서의 大院君의 孫子인 英親王家



歡迎은 實로 崎嶇한 運命의 作戲라고 들려야 할 것인가 그러나 南翁은 「先王考들은 殉教하던 마지막 瞬間까지도 당신들을 迫害한 張本人에 對하여는 一毫의 怨恨도 품지 않고 오직 無知와 愚昧로 造物主天主를 알지 못하여 저지른 過誤의 所致라 하여 도리혀 그들을 憐愍히 여기고 寬恕로써 그들의 事主救靈케 되기만을 默禱하였음을 생각하고 先王考들의 無言의 遺旨를 準行하였을뿐이라고 當時의 心境을 淡淡히 述懷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翁의 純粹無邪한 德性에 머리가 숙으러지는 한편 여러가지로 어려운 與件을 들보지 않고 오직 祖先德業의 顯彰과 子孫訓導에 資하기 爲해 追遠誌를 世上에 내 놓게 된 그 熱과 誠에는 무어라 讚辭를 表해야 할지 아지 못하는 바이다.

一九六九年 己酉孟夏

國史編纂委員會委員長

翠汀

金

聲

均

謹識

# 序

道之大源은 出于天이요 人之本源은 出于祖하니 奉其源하며 顯其祖는 人之常情이요 道之本意라 是故로 屈子離騷에 帝高陽之苗裔兮 朕皇考曰伯庸이라 하고 太宗唐史에 老子는 李氏之遙遙華祖라 하니 其當追尊爲玄元皇帝라 此志는 蓋出於尊本追遠之感慕也否아 試觀今日컨댄 人心惟危하고 道心惟微하여 綱常破滅하고 倫紀解弛하여 至於骨肉相殘이 日加月增하니 正是識者의 長嘆寒心事也라 相彼烏矣컨댄 彼雖微物이나 鴈知行하고 鸞守節하고 鷄知慈하고 烏知恩하니 況乎人而不如鳥類乎아 當此世降俗末에 有卓乎一人하니 可謂濁海滔天에 皞々紅日이요 汚塵蔽空에 皎皎明星이라 挽近南氏三貫分立之同姓하여 完成合譜하고 窮尋千年已久之先塋하며 備具儀物하니 世之宰稀요 人之儀範이라 此人은 宜寧姓其南이요 相喆은 其名이라 禍家之餘早孤之生으로 受養於外王考妣하니 天涯地角에 唯狼孤哀라 立身再興이요 自少至老에 一心專念이 只在奉先하여 最近則專誠禪力於南氏追遠誌를 編成하고 恒時自圖聖化하며 勸善爲業하니 此亦若往開來之一道也라 其誌는 蓋自始祖로 至于各派列代顯祖에 功勳忠義를 詳細記錄이라 就中其王考의 諱는 鍾三이요 號는 烟波라 高宗甲子時에 登文科하여 官至承旨하고 階陞嘉善이라 曾以西教(天主教) 事件으로 奉承考訓하고 嚴守教誡하며 從容就義하니 惜乎라 丹山一羽는 落而有綵요 黃泥片玉은 埋而益光이라 此言이 豈非有令公而言耶아 於孝於義에 孰不感慕리오 公의 嗣孫相喆은 與予舊交라 示此誌하여 囑余以序하니 以余淺見薄識으로 豈足以盡記奧旨리오 마는 願情思義에 不敢固辭일새 忘拙而略叙數言하노라

西紀一九六九年己酉桂月上澣

# 序

人雖有卓犖之行이라도 不有載籍이면 後世에 無有以知其蹟矣라 我南氏自英毅公으로 始受姓於新羅하고 至麗朝하여 分其英陽宜寧固城而云今七百餘年에 子姓이 繁衍하고 勲業名德과 節義文章이 代不乏絶하여 焜耀史乘하니 椅歟盛哉아 爲其後者宜圖其永不潭滅之策而尙未得遂志러니 族祖相詰氏가 往在乙未年에 英宜固三貫南氏大同譜를 發刊할事를 提議하여 諸宗과 屢次協議한 後越三年丁酉에 三貫南氏大同譜를 有史以來 처음으로 編成發刊하였고 始祖英毅公墓所奉審할 事을 또한 三貫南氏大宗會議에 提案하여 數年間慎重한 研究와 協議를 거듭한後 드디어 疑塚을 合謀開封하여 確的한 證憑을 發見한 後改莎封築하였으며 今次에는 乃奮然哀聚三派之賢人達士孝子 忠臣烈女之狀碣誌銘等하여 閱許多星霜而修正成編이라 名之曰南氏追遠誌라 하고 將欲發刊하여 廣頒於族人하여 使後昆으로 咸知祖先之模烈케 하니 其追遠之誠은 其謂至矣 盡矣라 屬基豐以序어늘 不敢以不文으로 辭하고 茲述梗槩하노라 嗚呼라 後之人이 以此爲鑑하여 克紹先烈하면 賢哲이 承蹤而出하리니 此誌豈止於此而已哉아

檀紀四三〇三年三月中浣

宜寧 后人 基

豐 謹序



# 序

孔子曰 夏禮를吾能言之나 杞不足徵也며 殷禮를吾能言之나 宋不足徵也는 文獻이 不足故也라 足則吾能徵之矣라하니라 蓋 文獻之於世也에 家國이 一致也라 窃伏念컨대 三貫南氏之祖는 英毅公인바 裔孫이 編滿國中하여 已至千有二百餘載에 名公巨 鄉과 忠臣孝子와 文章道義가 世世赫赫하여 家國이 固不可勝言이로되 每恨無一人徵言者矣러니 遑在乙未에 大宗會總裁宜寧后 孫相喆氏가 三貫南氏大同譜發刊할 事를 提案후 僉宗과 屢次協議하여 大同譜를 發刊하였고 다시 始祖英毅公墓奉審할 事를 發 議하여 數年間研究協議한후 드디어 疑塚을 開封하여 始祖公墓가 的實한 證憑을 發見한后 改莎封築하였다 自今 十有餘年前 의 大同譜發刊할時에 南氏追遠誌編纂할 事를 諸宗과 協定하고 公布한后에 此誌를 發刊하니 忠孝節等義之風을 無窮히 振作 케함이라 此誌는 吾南一門의 文獻이라 할지라도 聖人의 當是之時라하면 豈不曰吾能徵之矣乎라하리라 於呼라 矧又權邦進展之今日에 許久未遑之事を 同心協力으로 次第進學하니 此實爲國之先矛이요 吾南裔孫之曙光이니 豈不欽幸哉아 序事之文은 余光鎮孤陋者實不敢當之事이나 諸宗之囑을 亦不敢自外故로 謹撮大概如右하여 以告讀者諸公云爾라

辛亥三月

日

英陽后孫 光

鎮 謹序

增補 南氏追遠誌 續刊 序

태고로부터 많은 성현들의 한결같이 일러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 하였읍니다. 이 뜻을 협의(狹義)로 해석한다면 부모와 조상에 대하여 정성껏 받드려 드리는 일로만 단순히 생각하기 쉬울듯 합니다. 그러나 광의(廣義)로 해석한다면 극히 넓은 것입니니다 즉(卽) 우리가 일상생활(日常生活)을 영위함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에 속하는 일 중에 무엇인가를 받드시 하지됩니다. 따라서 어천만사(於千萬事)에 대한 여러가지일을 실행함에는 자연이 많은 사람과 서로 대화를 해야하고 대화를 하자면 먼저 마음으로 부터 생각을 하고 말은한 후에는 그 말한 바와같이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되신분은 항상생각하되 자손들이 여인교제(與人交際)함에 있어서 실왕설래(說往說來)하는 중에 후실연(失言)한 일은 없었을까 무슨 일을 처리함에 원망을 듣는 일은 없었을까 또는 무슨일에 대하여 고의(故意)는 아니었으며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무슨 손해를 끼친 일은 없었을까 만일 있었다면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고 사과를 청해야 했을텐데 과연 그와같이 아니했다면 그것은 자손의 잘못으로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조상에게 까지 그만큼 불명(不名)스럽게 하여드리는 것이 됩니다. 더구나 만일 고의로서 중중재산(宗中財產)이나 또는 타인에게 무슨 손해를 끼치었다면 자세한 설명을 더할 필요도 없이 그 자손된자는 막중한 죄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잠잠히 헤아려보면 우리가 사언행(思言行) 세가지를 행함에는 즉 생각이나 말이나 행하는 일에 모두가 직접간접으로 부모에 대한 호행에 관련되는 것이 됨으로 진실로 효는 백행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화봉삼축(華封三祝) (三祝은 壽, 富, 多男을 祝福함)이라는 축복을 받은 요순(堯舜)은 대답하되 오래살면 유됨이 많고(長壽多壽) 재물이 많은면 번거러운일이 많고(財富多煩) 아들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으므로(多子多懼) 도무지 원치 않았읍니다.

부모되신분은 그 지위(地位)의 여하함을 막는하고 무엇보다도 자손들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시 효행은 인간대도(人間大道)인지라 그러므로 우리남씨 대종회에서는 우선 효성지도(孝誠之道)를 닦아나가고 동족단결(同族團結)함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영, 의, 고, 삼관(英, 寅, 固, 三貫) 남씨대동보(南氏大同譜)를 창간했고 시조공묘(始祖公墓)를 봉심(奉審)하였으며 역대현조(歷代顯祖)의 사적(史績)과 유훈(遺訓)을 밝히고저 함에 온갖 힘을 경주(傾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외세(外勢)에 의하여三八선(線)을 경계(境界)로 하고 남북(南北)이 분열되어 통로가 두절되었으므로 인하여 북한동족(北韓同族)들은 시조공산소를 찾지못하고 남씨득성(南氏得姓)후千二百여년에 처음으로 편찬된 남씨대동보와 남씨추원지에도 북한동족은 전부 무락되었음을 크게 비탄하는바이라 바라건대 이북동족은 사상의상위(思想相違)됨을 빨리 개준(改悛)하고 五千萬 동포의 염원인 남북통일이 조속(早速)한 기일내에 이루어 영양 의령고성 二관을 통합한 남씨대동보(南氏大同譜)와 추원지(追遠誌)에도 중속히 참여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에 동족유지(同族有志)들의 남씨추원지를 재출판하여 달라는 요구가 답지하는 연유인즉 선대의 사적을 좀더 자세히 알아서 그유훈(遺訓)을 본받고 그 유덕(遺德)을 현양코저 하는 정성스러운 요청이 있었으므로 다시 약간절(若干節)을 보충(補充)하고 이에 증보 남씨추원지(增補南氏追遠誌)를 속간(續刊)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본지(本誌)를 속간함에 있어서 가장 비참함을 불금케 되는점은 최초의 三관 남씨대종회와 남씨대동보의 창간할 事를 계획하고 발기할 당시의 제반사를 적극적으로 협심육역(協心戮力)하여 주시던 상순(相舜) 족형을 비롯하여 태원, 상찬(台元, 相瓊)씨의외에 여러분과 더불어 일을 준비함에 한동안 마쁘게 지나든 때가 바로 며칠전인듯 한데 그후로 춘풍추우(春風秋雨)의 흐르는 세월을 거듭하여 二十여년을 지나는 사이에 이미 유명(幽冥)을 달리하신 분의 명단을 생각하면 相舜, 台元, 復元, 相顯, 相瓊, 基豐, 秉璫, 琮洛, 相集, 富年, 鎮枳, 廷夔, 廷淑, 運河, 元壽, 廷弼, 相奎, 相翊, 浚熙, 光鎬, 孝埰, 五鎮, 忠祐, 道源, 廷吉, 宗祐, 一浩, 龍顏, 命祐, 廷鎰, 吉祐, 松鶴甫등 이외에도 많은 분들과 오늘날의 현황(現況)을 한가지로 볼수 없게 되었음을 실로 비참한 마음으로 추도함을 금할수 없는 바라 오직 정성드려 하신님께 그의 명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다

一九七四年 八月 上澣

南氏 太宗 會 總 裁 相 喆 謹 識



## 시조(始祖)의 래력(來歷)은 알아 두어야 함

우리 동양의 학자들은 예로부터 일러내려오되 젊잖은 사람은 자기 시조의 내력을 알아야 하고 그 아래대의 모모(某某)한 어른의 사적도 알아야 하며 또는 타인의 보학(譜學)까지도 대강은 알고 있어야 행세 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지금 시대는 모든것이 점점 발전됨에 따라서 자기나라의 역사뿐아니라 외국의 역사까지도 대강은 알고 있어야만 문화인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즉 이러한 시점(時點)에 있어서 더구나 자기 시조의 역사조차 모른다고 대답할 염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시조의 내력은 우선 불가불 먼저 알아두어야 하며 그 아래로 각자(各者) 역대의 선조와 또는 다른 파의 모모한 어른의 내력도 대강 알아두어야 할것이다. 즉(卽) 어느때의 어느어른은 무슨공직(公職) 무슨사업 또는 문학적(文學的) 발명적(發明的) 충효열(忠孝烈) 도의적(道義的) 등등의 특별한 규범(規範)이 될만한 실례(實例)가 있었다면 그러한 등의 사실(史實)을 차손들이 우선 알고 있어야 그 유훈(遺訓)이나 유지(遺旨)를 체득(體得)하고 봉행(奉行)하여야 비로소 조상을 숭경(崇敬)하며 자손된 도리를 닦아 나가는 효행의 제 일보가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우리 시조의 내력을 사기(史記)에 실려 있는대로 그 요점을 좌기와 같이 기록한다.

우리 남씨시조는 남영의공(南英毅公)이니 공(公)의 성(姓)은 남(南)씨요 이름은 민(敏)이시라 본시 증원봉양부여남(中原鳳陽府汝南) (지금 中華民國 河南省汝南縣)사람으로 관직(官職)은 당 이부상서(唐吏部尙書)이요 신라 남영의공(新羅南英毅公)으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문하성좌시중(門下省左侍中)등이라 처음 성은 김(金)씨요 이름은 충(忠)이었다. 안렴사(按廉使)로서 풍범선(風帆船)을 타고 일본(日本)에 사신(使臣)으로 갔다가 돌아올때에 극심한 풍랑으로 인하여 신라 유린지(新羅有隣地) (유린지는 辰韓이었다가 후에 嶺南寧海府 丑山島라하였고 지금은 慶尙北道 盈德郡 丑山面 丑山里 이라)에 십생구사(十生九死)로 표착상륙(漂着上陸)하셨으니 때는 단기(檀紀)三〇八八년이요 신라경덕왕 김현영(新羅景德王金憲英) 一四년 을미(乙未)이며 발해왕(渤海王) 一九년이니 당현종 황제 아용가(唐玄宗皇帝李隆基) 천보(天寶) 一四년

이요 서기(西紀)七五五年이라 영의공이 축산도에 포좌상륙 하신후에 말씀하되 신라(新羅)에서 영주(永住)하겠노라 하셨으므로 경덕왕은 현종황제에게 문의한후에 공이 남(南)쪽에서 왔다하여 남씨로 사성(賜姓)하고 이름을 민(敏)으로 고쳤으며 영양현(英陽縣)을 식읍(食邑)으로 정하여 드리고 영의공(英毅公)을 봉(封)하였으니 공의 천자영준(天資英俊)한 뜻이 었으며 당시 공의 연세는 四十여이시라 그곳에 자손들이 이어 살아왔다 이듬의(翼)이라는 분이 영양을 습봉(襲封)하고 그후에 의령(宜寧)과 고성(固城)으로 분봉(分封)하여 드디어 영양남씨의 령남씨 고성남씨로 관향(貫鄉)을 셋으로 나누었다. 그후 예손(裔孫)들이 유덕유훈(遺德遺勳)하고 문장벌족(文章閥族)이 되었으며 영, 의, 고(英, 宜, 固)의 세파(三派)가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되어가는것은 모두 시조(始祖) 영의공의 유택(遺澤)이니라.

시조공 아래로 후손들의 수모 수모(誰某誰某)하신 어른들의 많은 사실(史實)을 각별히 대강이라도 기록하자면 수백권 책이 부족할것인즉이 좁은 지면(紙面)에는 도저히 기록하지 못하겠으므로 오직 각관중(各貫中) 상계(上系)의 몇분어른은 어느과의 누구가 대광공의 몇대째의 손자분이신지, 밀직공의 몇대째의 손자분이신지 고성군의 몇대째의 손자분이신지를 알자면 별지 남씨상계세대 조감도(南氏上系世代鳥瞰圖)를 대조하여 볼것이요 현대동족(現代同族)들의 항열자(行列字)는 본추원지부록 제五면의 항열도(行列圖)를 참조할 것인바 또한 한결같지 않은 과도 있으므로 호형 호숙(呼兄呼叔)함에는 항열자별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영, 의, 고, 삼군(英, 宜, 固, 三君)으로부터 몇대째이나고 서로 물어보아서 서열(序列)을 따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시조공 아래대로 내려오며 각자직조(各自直祖)의 내력이나 기타 모든것을 자세히 알기위하여는 삼관 남씨대동보와 남씨추원지를 세밀히 정독함을 권장하는바이다.

南氏上系世代鳥瞰圖

始祖 後孫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八世

英毅公 洪輔子謙 子淑孫子之卓子 堯子元漢子得貴

南敏 重大臣 注簿令同 及第檢校禮賓寺卿 及第 惟漢子仲龍

唐吏部尚書 事商議都監 新羅南英毅事軍器注簿 公諱敏이라 同正 子奕子承敬子顯

時에 姓은 金 이요 諱는 忠 이니 中國 鳳 陽府 汝南人 이라 唐天寶 十四年 (新 羅景德王十 四年乙未에 以按廉使로 高麗通憲大 奉使日本이 夫樞密院直 拉가 海中에 副使號 柏川 서漂風을 맞 明宗丙午生 斗十生九死 甲子卒 壽七 豆漂泊一到 十九墓在 하니 即新羅 宜寧邑 西洞 國盈德郡 丑四〇番地 山面 丑山島 斗墓在 本縣 斗景德王이 衙後而世遠 以其事로 唐莫記所在 斗 天子에 게 詳니 萬歷己丑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子承願子有蕃 子承吉 子承顧 子永蕃 子敏生 子約生 子得溫 子得恭

二九面 錄事公派

三七面 中郎公派

九七面 判書公派

進士公派